

■ 그림 여행



여우 사냥
(The Fox Hunt c.1893)

윈슬로우 호머 (Winslow Homer 1836 - 1910)

(캔버스에 유채 96.5 cm x 174 cm
펜실베이니아 미술 아카데미)

눈 덮인 겨울 별판. 여우는 고립되었다. 추위 속에 먹이를 찾아 헤맸으나 몸이 과묵할 정도로 쌓인 눈 속에 먹이는 다 사라져 버렸다. 허기진 여우는 지쳐 가는데 역시 굶주린 까마귀 떼가 알개 날며 여우를 노리고 있다. 눈을 헤치며 간신히 몸을 움직여가는 피곤한 여우 위로 화면 오른쪽 상단에는 날개를 펼치고 달려드는 검은 까마귀가 그려져 흰 눈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다.

지쳐가는 여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여우는 유일한 통로로 보이는 바다 쪽으로 머리를 향하고 있다. 여우의 뒷모습만 그려져 있기 때문에 관객은 여

우의 눈빛을 알 수 없다. 그저 눈 속에 감혀 쫓기고 있는 작은 동물의 절박함만 느낄 뿐이다. 차갑고 어두운 이 악육강식의 현장에 지난 여름 맺었던 산딸기 가지가 말라붙어 얼어붙은 겨울 세상 속에 자비함을 나타내듯 한 떨기 붉은 색채를 선사한다.

미국 화가 윈슬로우 호머는 보스턴에서 태어나 삽화가로 경력을 시작했다. '하퍼스 위클리' 라는 잡지에 삽화를 그려 주는 일을 하다가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통신원 자격으로 북부군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다. 전쟁의 경험을 그린 '전선에서 온 포로들' 이라는 그림으로 호평을 받았고 국립 디자인 아카데미의 회원으로 선출되어 유럽 여행길에 오르게 되었다.

유럽에서 돌아 온 호머는 1882년경에 미국 메인주 바닷가 어촌 마을 프라우츠벡에 영구 정착한다. 거친 대서양 바닷가에 고립되어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주로 바다라는 자연의 웅장함과 위험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이미지를 선명한 색채와 대담한 구도로 그렸는데,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이 '여우 사냥' 에서는 겨울 속 동물의 세계를 그려냈다.

완벽히 고립된 것으로 표현된 눈 속의 여우가 윈슬로우 호머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해석도 있다. 영리하고 지혜롭지만 세속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여우의 이미지 속에 호머가 자신을 투영했다고 보는 것이다. 바다를 바라보며 까마귀 떼를 피해 눈 속을 헤매는 여우의 모습이 그저 화가의 자화상일 뿐일까? 아니, 무심한 자연, 냉혹한 현실 속에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의 모습일 것이다.

《김동백》

그림 감상하는 두 가지 팁

■ 오랜 시간, 주의 깊게 보아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보아야 한다. 무엇을 그린 그림인지, 어떤 소재들이 등장하는지, 어떤 색깔을 써서 표현했는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재료는 무엇을 사용했는지, 질감 표현은 어떻게 했는지, 작품의 크기는 어떤지, 인물이 어떤 동작을 취하고 있는지, 인물의 표정은 어떠한지, 빛의 사용은 어떠한지 등을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한다. 회화라면 가까이에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이 모든 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예술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림이 자신의 감각에 즉각적이고 일방적으로 호소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작품의 비밀을 벗겨내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다 보면 어떤 설명하기 어려운 인상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 상상하고 가정하면서 보아라.

제대로 보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팁은 상상하고 가정하는 것이다. 인물의 얼굴을 파란색으로 칠한 그림이 있다면, '만약 이 얼굴이 빨간색이었다면, 노란색이었다면, 흰색이었다면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작가가 왜 굳이 파란색을 선택했는지, 그것이 이 그림만의 독특한 느낌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거친 필선이 아니라 가는 필선이었던, 크기가 3배로 크거나 5배로 작았다면, 철이 아니라 비누를 사용했다면, 배치가 달라졌더라면, 빛이 위에서 들어왔더라면, 캔버스가 아니라 자수로 만들어졌더라면…… 등의 질문이 가능하다.

예술은 결국 그 자체의 감각적 언어와 생생한 체험으로 어떤 주장을 전달한다.



미국 내과·스포츠의학과 보드전문

김진세

내과/통증전문의
스포츠의학과

스포츠 부상 전문 치료병원
근골격계 통증. 신경통증 전문의

P.R.P.(자가혈청) Stem Cell(줄기세포) 치료
USC 의과대학 레지던트 Training 지정병원

한국인 유일의 미국내과 및 통증의학
미국 스포츠 의학 보드전문



Chin Se Kim M.D.

- ◆ 미국내과보드전문
- ◆ 미국스포츠의학보드전문
- ◆ 미국통증의학보드전문
- ◆ 가주정부 Qualified medical evaluator

전문진료분야

- ▶ 일반 내과질환 :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폐질환, 응급치료
- ▶ 각종 스포츠 관련 부상 치료 전문
- ▶ 각종 통증치료 : 관절염, 통풍, TMJ, 목, 허리디스크, 견비통, 두통
- ▶ 최신 물리치료 : 침 치료, 교통사고, 직장상해
- ▶ 종합 진단검사 : 초음파, 심전도, ECHO, 폐기능 검사
Treadmill, Holter
- ▶ 가주정부 Disability evaluation 지정병원
- ▶ Sports injuries, 탈골, 골절치료, Cast, Custom brace
- ▶ 수술 후 재활 치료, 중풍 물리치료

최첨단 C-Arm 통증치료, 초음파 MRI, CT촬영, 각종 내과 질환 종합검진, 할인 Program 제공

오바마케어 취급
각종 HMO·PPO/보험/교통사고
직장상해보험/메디케어 취급
여행자 보험/종합 혈액 검사

문의전화 **714-520-0809**

1736 W. Medical Center Drive #B Anaheim, CA 92801

